달라이라마 첫 온라인 법문 생중계

5월16 · 17일 실시간 송출
한국어 등 13개 언어로도
세계불자들 반응 뜨거워
홈페이지 서버 멈추기도

박영빈 객원기자



온라인으로 법문을 진행중인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의 불교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티베트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 처음으로 온라인 법문을 진행했다.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은 지난 5월 16, 1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달라이라마의 첫 온라인 법문을 전했다.

사무국은 "달라이라마 성하께선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개인과 단체의 요청에 응해, 온라인 법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전했다. 지금껏 달라이라마의 법문이 온라인으로 중계되거나, 녹화후 업로드 된 적은 많았지만, 비대면 온라인 법회를 계획해 전세계로 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문의 주제는 용수보살의 〈보행왕정론(寶行王正論)〉의 1품과 4품이다. 용수보살이 남인도의 왕에게 대승불자의 길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구성된 논서로 1품에선 어떻게 선업을 쌓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하며, 4장에선 불교를 믿는 지도자로서 어떠한 덕목을 갖춰야하는지를 가르친다.

16일과 17일 양일간, 달라이라마의 관저에서 진행된 법회는 인도 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법문은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스트림 등의 라이브 채널과 달라이라마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됐다. 달라이라마의 첫 온라인 법회에 전세계의 불교도들이 집중하면서 한때 공식 홈페이지의 서버가 멈추기도 했다. 법문은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국어로 동시통역돼 송출됐다. 또한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라이브 채널의 특성상, 법문을 듣는 불자 간에 법문내용에 관한 토론이나 자료공유 등의 모습도 보였다.

달라이라마는 먼저 "저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고 말하고 싶다. 다음으로 종교인으로서는 '종교적 화합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싶다. 모든 종교는 다양한 사상과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지만 사랑과 자비, 용서와 관용과 자제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법문을 시작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이타심에 기인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먼저 나의 허물을 보고 다른 이를 생각하여 자타바꾸어 생각하는 것을 일상에서 연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불교의 가르침을 접근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은 심오하고 광대하므로, 논리적인 고찰을 통해 분석하고 이해한 후 실천해야 한다. 이는 딱딱한 음식을 잘 씹어야 소화가 되는 것과 같다"며, "논리적인 사고가 갖춰진다면, 보다 넓게 총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단지 믿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문의 마지막에 달라이라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온라인 법문을 이어가고자 한다, 또 질의응답도 가능할 수 있게 시도해 보겠다"며 이어질 법문계획을 시사했다. 또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바란다며 석가모니불과 관세음보살, 따라보살등의 진언을 염송할 것을 권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이어지는 온라인 법문에 관해 "오는 29, 30 양일에 걸쳐 관세음보살 관정을 온라인으로 수여할 예정이며, 중계방식은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태국사찰, 무료급식소 운영 개시

76개 지역서 1000여 곳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태국의 사찰들이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5월 14일 불교전문 해외매체인 '글로벌 부디스트도어' 는 방콕의 불교 사찰들과 태국 내 76개의 지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사찰 무료급식소 1000여개가 운영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인 태국은 대표적인 불교국가답게 불교계가 나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태국 전역의 불교 사원들이 각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봉쇄령으로 식품과 생필품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태국전국의 76개 지방에 있는 사찰과 그 인근을 포함해 약 1,000개의 무료 급식소가 지어져 저소득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식사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태국국립불교청 나롱 송가롬 청장은 "5월 13일 기준으로 27만 명이 도움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사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1,090만 바트(한화 4억 2천만 원)가 식사 준비에 소비되고 있다. 1인당 40바트(한화 1500원) 정도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스님들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조리된 일부 음식들은 탁발이 중지된 소규모 사찰들로도 전달됐다.

송가롬 청장은 "사찰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때문에 코로나 19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위생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람간의 거리를 두고 대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태국불교계의 무료급식소 운영에 감사를 표하며 "방콕왕궁 근처 강가에 있는 왓 라캉 코씨타람(Rakhang Khositaram) 사원의 경우 매일 1,000여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받아간다. 이 곳은 취약계층을 돕는 곳이만, 한편으론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서양 성서보다 40년 앞선 목판경 발견

티벳어 · 한문 동시 수록
중세의 네팔어도 포함돼
절첩식 인쇄 · 변상도 눈길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40년 앞선 목활자판 불경. 사진출처=오픈컬쳐

활판 인쇄술의 대표로 꼽히는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40여년 앞선 목활자판 경전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5월 15일 문화예술전문 매체인 '오픈컬쳐' 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40년 앞선 불교 경전을 보도했다. 특히 이 경전은 한문 뿐 아니라 산스크리트어 · 티베트어 등 고전언어가 동시에 수록돼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인쇄된 이 불경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다라니와 진언, 불보살들의 삽화를 담고 있으며 두꺼운 백지에 붉은 먹을 사용한 목판 인쇄본이다. 병풍처럼 앞뒤를 모두 볼 수 있는 절첩식(折帖式)으로 인쇄 됐으며 20여존의 불보살이 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책의 마지막에 쓰여진 간행기록에서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40년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고대필사본에 대한 전문 연구 자료를 공유하는 한 연구자는 "사실 이 책보다 앞선 목판, 혹은 금속 활판으로 된 불교문헌이 다수 존재하기에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40년 앞선 사실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이 불경은 한 권의 책 안에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한문의 세 고전언어가 함께 들어있다는 점, 또 목판화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섬세한 변상도라는 점과 보기 드문 진언집(眞言集)이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연구에 따르면 일부 경문에서는 중세 네팔어까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문서 전문가들은 해당 서적의 발견에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서 출판된 불교 서적들은 불교문화권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자는 "19세기 중반에 태국에서 필사된 한 문헌은 어느 스님이 극락과 지옥을 여행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는 태국에서 멀리 떨어진 몽골 불교의 문헌이 태국어로 번역된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또한 구텐베르크 성서와 비교하여, "이미 아시아권에서는 불교문헌을 대량 유포하기 인쇄술이 발전했다. 몇 세기 이전부터 목활자와 금속활자 등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고야산 불교문화, 집에서 즐긴다

불교체험 축제로 유명
올해는 온라인서 개최

일본불교의 성지이자 세계문화유산인 고야산 · 콘고부지(高野山 · 金剛峯寺)가 매년 개최해왔던 불교 체험축제 '롯파라미츠(六波羅蜜)' 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전했다. 5월 15일 일본의 '시사통신사' 는 콘고부지 측의 발표를 인용해 개최계획을 보도했다.

롯파라미츠 축제는 2015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고야산에서 개최되는 불교체험 축제다. 불교의 6바라밀에 맞춰 크게 6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의 테마는 '아름답게 살기 위한 6가지 힌트' 로, 고야산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주로 수행하는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야산이 소재한 와카야마현이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고야산 산내사찰 대부분이 산문을 폐쇄하거나 개방에 제한을 두면서 축제의 개최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사태가 해제되면서 고야산 측은 5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산내 시설들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콘고부지 측은 "긴급사태가 해제됐으나, 일본 전국에서 참배객이 몰리는 고야산의 특성상, 올해의 롯파라미츠 행사의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롯파라미츠에서 실시됐던 체험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4인 사경, 명상, 불교음악, 주인(朱印)의 네 가지 체험지도와 강의로, 모두 고야산의 스님들이 생중계한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미리 온라인을 통해 예약과 동참비를 내고 해당하는 일시에 고야산에서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강사 스님과 쌍방향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불교문화를 자택에서 체험 할 수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사)法불교조계종

종 정 철허 만원(봉은정사)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원로원장 성인 (대덕사)
종회의장 혜승 (선운사)
규정원장 혜윤 (금강사)
교육원장 보현 (보광사)
포교원장 혜선 (효암사)

선 원 장 진보 (법등사)
문화원장 일락 (중산정사)
(사)법불교조계종종정사서실장
사무총장 본산 대성사 주지 성관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TEL 02-762-2459 FAX 02-742-2344